



국내 ISV 기업을 위한 SaaS 비즈니스 성공 사례

고객 성공 사례

page	03	깃플
	05	두드림시스템
	07	디지털포토
	09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11	블루바이저
	13	씨아이피시스템
	15	아림티엔씨
	17	커먼컴퓨터
	19	포이시스

고객 지원 솔루션 전문 기업

깃플

오라클 클라우드로 B2B와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

깃플은 챗봇과 채팅 상담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깃플은 최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Contact Center as Service)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전통적인 컨택센터 솔루션 기업과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

쉽고 빠른 상담 센터 구축

고객 상담하면 떠오르는 것이 콜센터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콜센터는 상담원을 통해 문의를 처리한다. 최근 흐름은 전화는 기본이고 여기에 이메일, 채팅, 챗봇,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세다. 또한, CTI 솔루션을 도입해 이런저런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해 운영하던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바뀌는 것 또한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깃플은 이런 시장의 진화를 앞장서 이끄는 스타트업이다. 깃플의 깃플챗은 최소 비용으로 빠르게 디지털 상담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국내 주요 기업과 공공 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였다.

주요 이용 고객의 변화

깃플은 고객 기반을 넓히는 가운데 변화를 감지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고객 상담 센터 구축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가 주류가 되면서 B2B 및 엔터프라이즈까지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깃플에게 엔터프라이즈 시장 기회가 열린다는 것은 스타트업이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깃플은 오라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품는 전략을 택했다.

오라클 클라우드로 엔터프라이즈 다양한 요구 수용이 가능

깃플은 B2B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요구 사항 속에서 답을 찾았다. 이 시장은 하나의 채널로 고객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닌, 다양한 채널로 고객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상담 전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에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 선점을 위해 깃플은 오라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 파트너의 솔루션과 결합을 통해 B2B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요구를 맞춤형으로 수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관련해 AI 기반 챗봇 빌더, 대화형 RPA, 옴니채널 지원을 CTI 연동(보이는 ARS, IVR 등), 개인화 추천, 상담 데이터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갖춘 국내 유명 기업과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들 솔루션을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는 깃플챗과 연동하는 것은 오라클의 금융, 공공, 제조, 유통 등 산업별 시스템 통합 파트너의 힘을 빌리는 것이 깃플이 그린 큰 그림이다. 오라클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클의

파트너 역량까지 활용해 B2B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깃플은 현재 깃플채트를 무료와 프로 버전 가입형 서비스와 동시에 고객의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 또는 원하는 public 클라우드 계정에 고객사만의 깃플채트를 구축해 주는 저렴한 독립 클라우드와 사내 구축형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독립 클라우드는 설치비, 유지보수, 관리비 포함 월 99만원으로 구축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국어 지원과 함께 오라클 클라우드 타고 세계로

깃플의 시장 확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발판 삼아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깃플채트 서비스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관련해 우선 공략 대상은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거나,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해 오라클 클라우드의 글로벌 리전을 활용해 다국어 버전 깃플채트를 세계 어디서 사용하건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

오라클 클라우드는 깃플에게 인프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깃플의 사업 모델의 중심에 놓고 여러 업체들과 솔루션 연계를 고민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커스터마이징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오라클의 산업별 시스템 통합 분야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

깃플 관계자

SaaS 기반 전자 도서관 서비스 전문 기업

두드림시스템

고가용성 확보와 TCO 절감에 성공

두드림시스템은 25년 간 도서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노하우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단순히 이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만 깊은 것이 아니다. 2015년 국내 최초로 SaaS 기반 전자 도서관 관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도 빠르게 대응하는 민첩함을 보여주었다.

400여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

SaaS 기업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SaaS에 대한 오랜 걱정인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 보안에 대한 걱정을 확실히 해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로 삼는다. 시장에서 성공한 SaaS가 공인 기관에서 성능, 품질, 보안 관련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도 다 고객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2015년 ‘이젠터치 클라우드’라는 국내 최고 SaaS 기반 전자 도서관 시스템 서비스를 선보인 두드림시스템 역시 NIPA의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KISA에서 실시하는 클라우드 SaaS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등 신뢰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두드림시스템의 고객 신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몇몇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이젠터치 클라우드’의 고객 신뢰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고객의 신뢰 강화를 위한 결단 ‘오라클 클라우드로 전환’

두드림시스템이 정착한 곳은 오라클 클라우드다. 2015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6년 오라클 클라우드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 2019년 한국 리전이 생기면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이젠터치 클라우드’ 사업의 주요 무대로 쓰이게 된 것이다. 두드림시스템에게 오라클 클라우드는 ‘가성비’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없었다. SaaS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는 것은 쉽다. 자원을 충분히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는 원가에 민감하다. 원가와 성능, 품질 간 균형점을 잘 찾아야 고객에게 제시하는 서비스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이는 곧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라클 클라우드는 가성비 의 이점이 크다는 것이 두드림시스템의 판단이다.

SaaS 제공을 위한 성능, 품질 간 균형점 찾아

두드림시스템은 오라클 클라우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이젠터치 클라우드’를 올려 테스트 및 시험 운영을 1개월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라클 IaaS가 갖는 성능을 직접 체감하였다. 그리고 ‘이젠터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었다. 오랫동안 찾던 원가와 성능, 품질 간 균형을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인한 두드림시스템은 다른 사업자의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던 SaaS를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걸린 시간은 3일에 불과하다.

두드림시스템은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속도로 서비스를 개선해 가기 위해 Oracle Autonomous Datawarehouse, Oracle Analytics Cloud, Oracle Mobile Cloud 등의 오라클 클라우드 PaaS를 이용해 ‘이젠터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숙원 사업인 해외 진출을 위해 오라클과 협약을 맺고 오라클 마켓플레이스에 서비스 등록을 추진 중이다.

“

SaaS 기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안정성이 최고로 중요하다. 서비스 접속에 문제가 있거나, 이용에 불편이 느껴질 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브랜드 신뢰에 금이 간다.

예전에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문제로 우리 SaaS가 중단된 적이 있다. 장애는 일어날 수 있다. 관건은 복구가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이용하던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장애가 난 적이 있는데, 당시 1시간 30분 가량 복구가 지연되었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한 후부터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

두드림시스템 관계자



두드림시스템이 Oracle Cloud를 이용해 서비스 중단 걱정 없이 SaaS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동영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온라인 사진 인화 서비스 시장의 선도하는 기업

디지털포토

품질, 가격, 속도 세 가지 서비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라클 클라우드 사용

디지털포토는 2000년 사월 국내 최초로 ‘찍스(ZZIXX)’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며 온라인 사진 인화 서비스(Internet Photo Service)라는 개념을 소개한 기업이다. 디지털포토는 다양한 영역으로 ISP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현재 디지털포토는 사진 인화 앱, 트루포토북 앱, 사진@액자 앱, 셀프 증명 앱, 찍스 클라우드, 웹/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찍스의 3대 서비스 원칙

디지털포토의 모든 서비스는 같은 QPS 원칙으로 운영된다. 품질(Quality) 보장을 위해 디지털포토는 찍스 고유의 이미지 최적화 기술과 최고 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한다. 가격(Price)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인 합리적인 비용을 이어가기 위해 공정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속도(Speed) 원칙은 배송 시간에 대한 것으로 본사가 직접 수취를 맡아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하고 있다. 이러한 3대 서비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포토는 IT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특히 신경을 써왔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모두 사용

디지털포토는 데이터센터에 직접 구축한 시스템 환경과 클라우드를 모두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사진 인화, 포토북, 액자 등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폭넓다 보니 이를 운영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분산된 것이다. 오랜 기간 제공한 서비스는 자체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그리고 새로 추가된 신규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 발 빠르게 진출했다. 디지털포토와 같이 오랜 기간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경우 보통 이런 식으로 레거시와 클라우드가 혼재된 환경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라클 클라우드로 대동단결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함께 운영하면 인프라 관리 효율이 떨어진다. 관리 대상이 1개인 것과 2개인 것 중 관리 효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관리 포인트가 하나인 경우다. 디지털포토는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환경을 하나의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24×7×365일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이유다.

디지털포토가 클라우드를 통합의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간단하다. 일정을 잡아 관리자가 일일이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작업하는 것과 콘솔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효율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디지털포토는 관리 효율 외에 비용 측면의 효과에 주목했다. 기존 환경을 오라클 클라우드로 통합할 경우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비용이 모두 크게 낮아진다는 것은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바로 알 수 있었다. 기존에 이용하던 클라우드로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통합하지 않고, 오라클 클라우드를 새로운 환경을 선택한 이유도 비용 때문이다.

인프라 비용 40% 절감

디지털포토는 모든 시스템을 이전한 후 운영 비용을 따져 보니 당초 예상보다 높은 40%의 인프라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전환 후 바로 효과를 본 이유로 디지털포토는 오라클이 적극적인 지원을 꼽는다.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기 쉽다. 디지털포토는 최적의 활용 방안, 마이그레이션, 비용 관리,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오라클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전환 후 바로 효과를 거두었다.

디지털포토는 비용 절감이라는 1차 목표 달성에 성공했고, 현재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포토는 Oracle Cloud Database Service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여 데이터 관리 최적화를 준비 중이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온프레미스와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기회를 살려 데이터 관리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불어 Oracle Developer Cloud Service를 통해 향후 DevOps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개발 문화를 조직의 경쟁력으로 삼는 것도 고려 중이다.



“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야 한다. 예전에 이용하던 클라우드도 벤더와 파트너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오라클은 벤더와 파트너 지원 체계가 남달랐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아 무리 없이 모든 서비스 기반을 오라클 클라우드로 통합할 수 있었다.

디지털포토 관계자

”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구독서비스 ‘레지스 바스(BaaS: Blockchain as a Service)’ 블록체인기술연구소

대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혁신사업 선정 의료, 공공, 물류 및 유통 분야 공인 받은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술하면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연상하며 암호 화폐를 떠올린다. 이는 블록체인이 갖는 잠재력의 일부만 보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의료, 공공, 물류, 유통, 에너지,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탈 중개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IBCT, Institute of BlockChain Technology & service)는 산업 특화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인 레지스(LEDIGS) 개발사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2019년 방위사업청(DAPA)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공공업무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공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개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대상 과제, 창업 성장 혁신과제 수행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공용 클라우드를 이용해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전통 산업과 빠르게 융합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릭과 프라이빗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더 많은 기업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다양한 응용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사업 초기 공용 클라우드 상에 블록체인 플랫폼 및 노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회원사가 늘어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비용 문제에 직면하였다.

성능 양보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오라클 클라우드로 전환

블록체인 플랫폼은 여러 개의 노드 간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된다. 각 노드에서 블록을 생성하고, 각 노드 간 전송이나 조회 관련 트랜잭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성능 양보 없이 비용 절감이 가능한 대안을 찾아 나섰다. 여러 서비스를 놓고 고심한 끝에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오라클 클라우드로 플랫폼 환경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시간, 인력, 비용, 안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내부적으로 평가해보니 오라클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클라우드와 비교할 때 더 나은 성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구독서비스

‘레지스 바스(BaaS: Blockchain as a Service)’ 출시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자체 블록체인 구독형 서비스 상품인 ‘레지스 바스(LEDGIS Baas)’의 기획 단계부터 오라클 클라우드를 최적의 인프라로 판단하여 상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LEDGIS-BaaS 고객들은 당사 제품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 오라클 클라우드 기술력을 꼽고 있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 레지스 플랫폼과 노드 관련해 여러 서버를 구축했다. 그리고 탈중앙화 응용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환경도 마련했다. 그리고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원화 하였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 적용하였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당초 목표로 한 클라우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보다 더 큰 성과로 꼽는 것은 개발 역량 강화와 다양한

산업계의 시장을 넓혀갈 기회 확대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기업용 블록체인을 산업별 특화 솔루션 형태로 개발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의료, 물류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산업 특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산업계의 욕구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급하려면 대용량 데이터 저장과 처리, 망 분리, 다중 운용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오라클 클라우드가 엔터프라이즈가 요구하는 응용 기술 개발과 적용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오라클의 파트너 생태계를 통한 블록체인과 전통 산업 간 융복합을 위한 협력에 대한 기대도 크다.

앞으로 블록체인기술연구소는 오라클 하드웨어 인프라를 통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레지스(LEDGIS)의 다양한 DApp 사업자들에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라클 사의 제품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당사의 핵심 비전은 신뢰 기반 인터넷 비즈(Biz)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퍼블릭과 프라이빗 경계를 허무는 차세대 블록체인 레지스 플랫폼이 공공, 유통,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용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며, 대안으로써 오라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 관계자

”

AI 기반 자산 투자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

블루바이저

금융 투자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오라클 클라우드로 확보

블루바이저는 AI 기반 자산 투자 관리 플랫폼인 하이버프(Highbuff)를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블루바이저는 2019년 스타트업 월드컵 2019에서 4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톱10에 진입하며 그 이름을 널리 알렸다. 뉴욕 대회에서 블루바이저는 하이버프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모두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떡잎부터 남다른 스타트업

사실 블루바이저는 창업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2016년 AI를 접목해 하이버프 코어 개발을 마친 후 이듬해인 2017년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2차 심사를 통과한 17개 알고리즘 중 수익률 1위의 기록을 남겼다. 여세를 몰아 2019년 AI 재테크 무료 체험 버전을 공개했고, 2019년 나스닥 TV와 인터뷰 그리고 스타트업 월드컵 톱10 선정 등 매년 화제를 모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런 관심은 하이버프 기술적 차별화와 SaaS 기반 편의성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이다. 하이버프는 100%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한다.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투자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 일반 금융 상품과 달리 SaaS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익이 나면 즉시 인출을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클라우드와 머신 러닝의 조합이 성공 이끌어

하이버프와 같이 수익률 높은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SaaS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대부분 엄청난 투자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빅 데이터 수집과 처리 그리고 머신 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다면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스타트업 중 이런 접근을 하는 곳은 없다. 블루바이저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슈퍼컴퓨터급 파워를 이용해 빅 데이터를 수집해 처리해왔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였다. 이를 반복하며 하이버프의 투자 관련 예측 능력을 높여 왔다.

오라클 클라우드로

금융 기관 수준의 IT 기반 갖춰

블루바이저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금융 투자가 서비스의 핵심인 만큼 금융권의 적용하는 IT에 대한 높은 기준을 블루바이저 역시 고려한다. 이것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다. 블루바이저는 한국과 미국 금융 시장을 대상으로 AI 기반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 한국의 경우 B2C 무료 체험 버전과 AI 기반 복지 플랫폼 형태로 기업이 직원에게 자산 관리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버전은 뉴욕 증시와 나스닥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투자란 특성을 고려해 블루바이저는 안정성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썼다. 금융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다. 일각을 다투는 만큼 시스템 안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블루바이저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해 하이버프 플랫폼의 신뢰성을 높였다.

오라클 클라우드와 CX 클라우드 조합으로 글로벌 서비스 기반 마련

블루바이저는 현재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향후 유럽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투자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는 블루바이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블루바이저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해 기업 정보, 금융 시장 등에 대한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CX (Customer Experience)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SaaS 서비스를 구성했다. 그 결과 인프라는 유연한 확장과 축소를 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오라클 클라우드의 글로벌 리전을 잘 활용해 네트워크 응답 시간을 최적화하여 SaaS 이용에 따른 서비스 지연이나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해 일반 투자자와 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 블루바이저는 AI로 기술적 차별화를 하였고, 다양한 평가에서 수익률을 인정받으며 브랜드를 알려왔다.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로 하이버프에 대한 시스템 측면의 신뢰성도 인정받고 있다.

”

블루바이저 관계자

건설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는 SI,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씨아이피시스템

클라우드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씨아이피시스템은 1999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해 시스템 통합,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 왔다. 주력 사업 분야는 건설 정보화 분야로 건설 ERP, 건설 관련 각종 패키지 소프트웨어,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건설 특화 서비스 등을 국내 주요 기업에 제공해왔다.

건설 정보화 부문에 일고 있는 신규 비즈니스 기회

한국은 설계와 시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은 현재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건설 업계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과 함께 건설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건설 정보화의 중요성은 사실 오래전부터 강조되었다. 건설 업체는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활동을 한다. 이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정보화다. 정보화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씨아이피시스템은 한국 건설 정보화를 이끄는 주역 중 하나로 4차 산업 시대 건설 정보화 가속을 돕기 위해 건설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프라 구축, 운영, 관리의 어려움

씨아이피시스템은 위험 관리, 노무 관리, 차량 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는 IoT, 위치 기반 정보 처리와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건설 정보화에 4차 산업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건설 현장 특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을 높이려면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장애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 관련해 씨아이피시스템은 서비스 제공 인프라 관제와 운영에 큰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왔다. 클라우드를 사용했음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만큼 꽤 큰 비용이 든다. 이에 가성비를 따져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첨단 기술 적용에 투자해 건설 현장 특화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가성비 높은 오라클 클라우드로 전환

씨아이피시스템이 세운 대책은 가성비 높은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옮기는 것이었다. 가상 머신, 베어 메탈, 블록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 요소를 대상으로 가성비를 평가한 결과 오라클 클라우드는 우위를 보였다. 특히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부분에서 오라클 클라우드는 씨아이피시스템의 건설 현장 특화 서비스의 원가 절감에 유리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블록 볼륨 스토리지의 경우 500GB 이상 사용 시 최대 IOPS 이용이 가능하다. 씨아이피시스템이 직접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IOPS 상승에 따라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다른 서비스의 과금 방식과 달라 오라클 클라우드는 IOPS가 높아져도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네트워크의 경우도 오라클 클라우드는 아웃바운드 데이터를 월 10TB까지 무료로 처리할 수 있고, VPN/NAT/로컬 피어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찾던 원가와 성능, 품질 간 균형을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인한 두드림시스템은 다른 사업자의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던 SaaS를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걸린 시간은 3일에 불과하다. 두드림시스템은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속도로 서비스를 개선해 가기 위해 Oracle Autonomous Datawarehouse, Oracle Analytics Cloud, Oracle Mobile Cloud 등의 오라클 클라우드 PaaS를 이용해 ‘이젠티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숙원 사업인 해외 진출을 위해 오라클과 협약을 맺고 오라클 마켓플레이스에 서비스 등록을 추진 중이다.



씨아이피시스템이 Oracle Cloud로 운영 비용을 40% 절감해 서비스를 제공한 비결을 이 동영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현장 특화 서비스에 첨단 기술 접목도 오라클과 함께 추진

씨아이피시스템은 클라우드 전환을 기회로 오라클 클라우드 활용 ISV/MSP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단순히 비용을 낮추기 위해 오라클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 오라클과 함께 더 많은 고객에게 더 안정적인 건설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한편 씨아이피시스템은 건설 현장 특화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Developer Cloud Service를 이용해 클라우드 기반 개발 방식을 조직에 뿌리내리게 하고 AWD의 머신 러닝 기능 적용과 노무 관리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

오라클 클라우드로 인프라 운영 비용의 40%를 절감했다. 더불어 관제와 운영 관련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도 구축할 수 있었고, ADW나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기술 로드맵 수립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

씨아이피시스템 관계자

17년간 솔루션 개발 외길을 걸어온 ERP 전문 기업

아림티엔씨

클라우드 ERP 서비스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

아림티엔씨는 2003년 설립 후 ERP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에 주력해온 기업으로 제조, 유통, 금융, 호텔&리조트, 서비스,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에게 ERP 시스템을 공급해왔다. 아림티엔씨는 자바로 개발한 웹 기반 ERP 솔루션과 직접 만든 개발 툴(X-Internet Tool)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도 자사의 업무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17년간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에게 시스템을 공급하며 ERP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ERP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서비스화되고 있다. ERP를 구축형 시스템이 아닌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돕는 서비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관련해 아림티엔씨는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였다. 그 결과 고객은 대내외 시스템과 유연한 연계를 원하고, 디지털 중심의 종이 문서 없는 업무 환경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각각 별개라 여기던 ERP, 그룹웨어, EIS를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로 묶어 접근하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파악했다.

클라우드 ERP로 달라진 고객이 기호 맞추기

아림티엔씨는 ERP를 바라보는 고객의 시선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더 잘 다루고, 디지털 환경에서 대내외 협업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는 포괄적인 환경을 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클라우드 ERP 전략을 구체화했다. 구축형 솔루션을 단순히 Saa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중소중견 기업이 원하는 클라우드 ERP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림티엔씨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했다. 이는 기술적, 사업적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기술의 경우 아림티엔씨는 자바 기반 웹 시스템 개발 역량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자사 ERP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쌓아왔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ERP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가는 데 있어 Oracle Cloud Database Service와 Oracle Developer Cloud Service 등 오라클 클라우드는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하다. 또한, ERP는 그 특성상 성능 저하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고객의 업무가 멈춘다.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성능, 안정성, 보안 측면에서 아림티엔씨에게 확신을 주었다.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오라클 클라우드는 아림티엔씨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신규 고객을 찾고, 다양한 IT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는 데 있어 안정적인 파트너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분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오라클 파트너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해 클라우드 시대에도 지속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아림티엔씨의 전략이다.

저비용, 고효율 ERP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열어갈 것

아림티엔씨는 2019년 클라우드 ERP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림티엔씨의 클라우드 ERP는 오랜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온 영업, 구매, 생산, 재고, 회계, 인사, 급여 등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 회계 전자 증빙 시스템 및 관련 워크플로우와 다양한 대내외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API 제공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림티엔씨는 클라우드 ERP 출시 후 연이어 클라우드 그룹웨어,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 클라우드 포털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ERP, 그룹웨어, 모바일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거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클라우드 포털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고객 기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

기업들은 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고 있고 그 중심에 ERP 서비스가 있다. 우리는 클라우드 ERP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단순한 ERP 솔루션 개발과 구축 사업을 넘어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우리의 클라우드 ERP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성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

아림티엔씨 관계자

블록체인 & 오픈 리소스 플랫폼 전문 기업

커먼컴퓨터

오라클과 함께 클라우드 계의 깃허브 목표 향해 전진

커먼컴퓨터(Common Computer)는 구글과 네이버 출신들이 의기투합해 2018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과 함께 오픈 리소스 플랫폼 분야의 개척자로 유명하다. 커먼컴퓨터는 클라우드 계의 깃허브를 꿈꾼다. 커먼컴퓨터는 ‘오픈 리소스’라는 개념을 녹인 ‘아이나이즈(AINIZE)’ 플랫폼을 개발했다.

오픈 소스와 뜻을 같이하는 오픈 리소스

아이나이즈는 모두에게 문호가 열린 쿠버네티스 기반 서버리스 플랫폼이다. 아이나이즈는 흔히 볼 수 있는 서버리스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니다. 이 플랫폼은 커먼컴퓨터의 비즈니스 모델인 동시에 각종 오픈소스 코드를 실행환경과 함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간편히 공유하는 개방된 환경이다.

커먼컴퓨터가 아이나이즈를 개발한 계기는 단순하다. 클라우드 대중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사업하기 더 좋아졌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코드로 구현해 실행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정 비용도 부담스럽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PaaS 이야기를 하면서 개발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로 익혀야 할 것도 많고, 스타트업과 개발자의 얇은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것도 똑같다.

커먼컴퓨터는 스타트업과 개발자가 노트북만 있으면 바로 깃허브에서 자신의 코드를 가져와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가운데 다양한 오픈 소스 코드 실행 환경까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오픈 리소스 활용 문화를 만들자는 마음에 아이나이즈를 개발했다.

오라클 클라우드로

가성비 높은 서비스 리스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커먼컴퓨터는 아이나이즈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개발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초기 비용 걱정 없이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려면 가성비 높은 인프라를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커먼컴퓨터의 열정과 비전을 알아본 곳은 오라클이었다. 오라클은 아이나이즈 운영 기반으로 Oracle Cloud Kubernetes Container Orchestration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료는 아이나이즈 사용자가 런칭한 서비스가 실제 수익을 낼 때 수익을 일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받는다. 오라클 역시 커먼컴퓨터와 같이 더 많은 이들이 기회를 함께 하는 것에 동참한 것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오픈 리소스 열풍 이어갈 계획

커먼컴퓨터와 오라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이나이즈 베타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오픈 리소스’에 대한 개발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베타 기간에 월 1백만 액티브 유저가 아이나이즈를 이용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코드 또는 오픈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하드웨어 자원을 설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Jupyter 노트북이나 CloudShell로 코드를 편집하고 바로 빌드해 실행해보고 그 성능과 속도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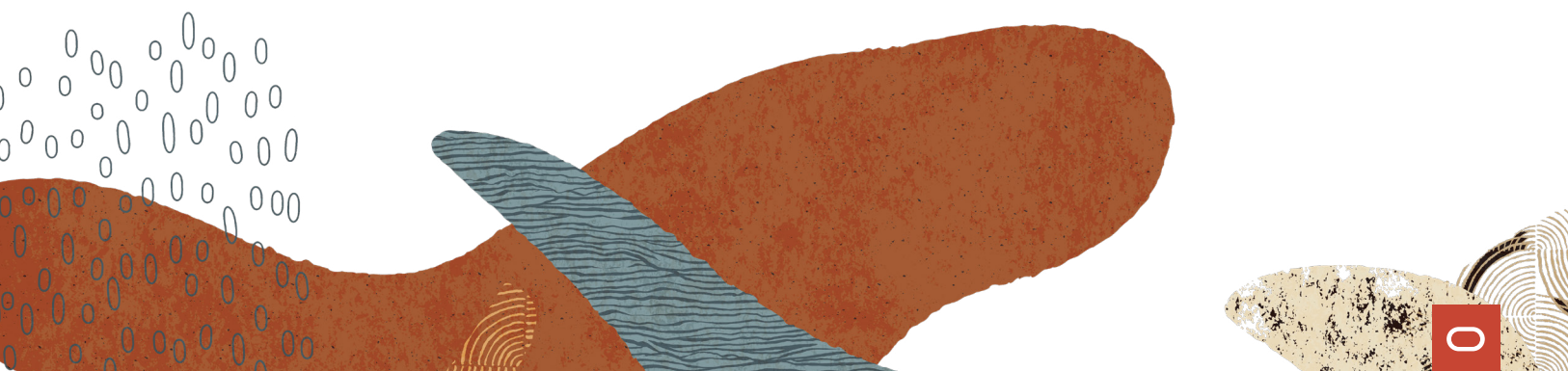
커먼컴퓨터는 오픈 리소스의 혜택을 더 많은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AI 등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참조하고 있는 오픈 소스 코드 5만 개를 아이나이즈에 올려 누구나 그 실행 결과를 서비스 개선이나 런칭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이나이즈를 이용하면 리소스 부담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오픈 소스와 같이 공개된 코드의 경우 누군가 한번 리소스를 구성해 실행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를 다른 이들이 공유할 수 있다. 이 모든 편의성을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

커먼컴퓨터 관계자



금융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

포이시스

오라클 클라우드로 해외 진출 가속

포이시스는 17년간 인터넷 대출, 인터넷 뱅킹, 신용 평가 시스템 등 금융 솔루션 개발과 컨설팅에 매진해 온 금융 IT 전문 기업이다. 포이시스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해 지난 몇 년간 서비스를 컨설팅에 고도화하였고, 그 결과 2019년 본격적인 해외 고객 증가를 경험했다. 이런 성과는 국내 ISV 업계에 신선한 자극이다.

해외 진출의 어려움

한국은 IT 강국이지만 그동안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IT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의 경우 현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고객을 지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요즘 클라우드로 인해 국내의 실력 있는 ISV 기업의 해외 진출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17년간 소비자 금융, 신용 평가, 채권 관리 등 금융 솔루션 개발에 매진해온 포이시스는 2014년 중국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포이시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고객 데이터센터 환경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관련 인프라를 구성하고 여기에 자사의 솔루션을 구축했다. 이 방식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포이시스처럼 현지 고객 지원을 위해 일일이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부담이 크다.

오라클 클라우드로

해외 고객도 한국 고객처럼 지원

포이시스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다. 이 와중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접하게 되었다. 금융 솔루션의 특성상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해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사용한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성능과 비용 걱정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다면?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한 글로벌 소비자 금융 솔루션을 일일이 고객 데이터센터에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다면? 해외 진출 초기 겪었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현지 지원의 짐을 덜어내고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포이시스의 이런 고민에 오라클 클라우드는 확실한 답을 제공했다.

포이시스는 글로벌 소비자 금융 솔루션을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데 있어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했다. 내부 평가 결과 다른 클라우드보다 3배 이상 높은 성능을 보인 오라클 IaaS에 라이선스 구매보다 낮은 사용료의 이점이 큰 Oracle DBCS의 조합 그리고 지속해서 드러나는 오라클 클라우드 리전은 포이시스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았다.

초기 구축 비용 문제와 현지 지원 문제 모두 해결

포이시스의 예상은 적중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하드웨어 준비와 소프트웨어 설치에 3~4주가 소요되던 것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1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동안 영업할 때 늘 거론되던 초기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했다. 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비용을 낼 필요도 없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역시 매우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초기 비용에 대한 논의가 영업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진 것이다.

“

처음 클라우드를 알아볼 때 여러 곳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련 기술 문의를 했는데 협력을 바랄 수 없었다. 모두 우리 엔지니어가 알아야 해야 하는 식이었다.

반면에 오라클은 영업 대표에게 문의하니 다음 회의 때 엔지니어와 함께 방문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줬고,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문가의 노하우도 전수받았다.

”

포이시스 관계자



포이시스가 Oracle Cloud를 이용해 금융 솔루션 서비스를 해외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oracle.com/kr/cloud/free/#always-free>

오라클 무료 클라우드 체험하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품 관련 문의 ☎ 080-2194-080

